“편백운 사태 종식… 새 미래 열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취임 1년 소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태고종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6월 23일 서울 총무원청사에서 열린 제14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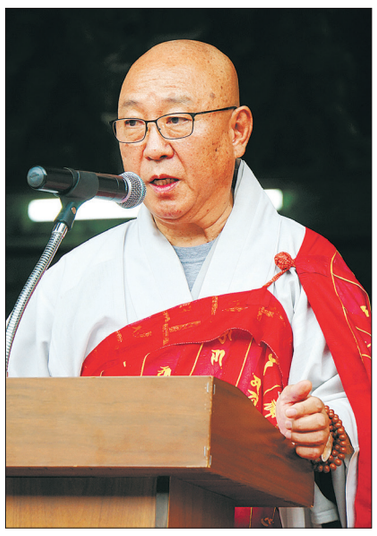
호명 스님은 태고종 역사상 유일하게 총무원 청사가 아닌 길거리에서 당선증을 받은 총무원장이다. 前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불신임 불복으로 야기된 종단 혼란이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해 6월 27일 27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길거리에서 총무원장 당선증을 받았고 청사가 아닌 임시 총무원에서 불완전한 종무행정을 시작했다. 무엇하나 쉽지 않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로부터 1년. 태고종은 완전히 변모했다. 편백운 스님이 무단점거하던 총무원사를 원만히 되찾았으며 종법에 따라 편백운 스님은 멸빈됐고 종무행정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편백운 스님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법적으로도 태고종 현 집행부의 정당성이 확인됐다. 이로써 1여 년간 종단을 뒤흔들었던 최악의 분규는 상처만을 남긴 채 완전히 막을 내렸다.

6월 23일 태고종 제141회 임시중앙종회 개회에 앞서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른 호명 스님은 편백운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선포했다.

호명 스님은 “편경환 前 총무원장은 불신임에 불복해 혼란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종법 절차에 따라 멸빈된 이후에도 ‘불신임 무효 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이라 호언장담하며 종도의 귀를 막고 종단 혼란을 조장했다”며 “그러나 결국 재판에 패소함으로서, 이제 편백운으로부터 시작된 종단 사태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이어 스님은 “1년 전 청사 앞 길거리에서 총무원장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우리 종단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혼란과 분규를 겪으며 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당시 종도들로부터 ‘총무원장으로 당선됐으면 빨리 총무원사로 들어가야지 왜 밖에 있냐’는 질책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제141차 중앙종회서 밝혀
불신임 소송 승소 ‘마무리’
“지난 상처 딛고 일어서자”
수억대 부채 등 숙제 ‘산적’
추락한 대외신뢰 회복 필요

그러나 호명 스님은 “종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태고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헌종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단이 빠른 안정과 종도 화합을 꾀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원칙이 있었다”며 “다행히 이 같은 원칙에 대한 종도들의 원력과 공감이 모인 결과, 지난해 12월 19일 물리적 충돌 없이 총무원사에 돌아올 수 있었고 오늘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27대 총무원 집행부를 지지한 모든 종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지난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강한 원력도 피력했다.

호명 스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며 “아직도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전임 집행부의 종권 농단으로 발생한 수 억원 상당의 부채 해결은 물론, 종단 귀속된 복지법인이 처분되거나 보덕사 등 공찰이 무단으로 매매되는 등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총무원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부터, 그동안 추락한 대외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당면 과제다.

이에 호명 스님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파사현정을 통한 종단 안정과 종도화합이 종단운영의 기본 방침임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시중앙종회는 △2019년 종무기관 정기감사결과 보고 △종무원 결산보고 △제5대 원로의원 선출 △총무원 부장 · 고시위원장 · 호법위원 · 초심위원 임명보고 및 인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제5대 원로의원은 지족, 청봉, 서운, 혜명, 도연, 각림, 은수, 영길, 덕화 스님을 비롯한 21명이 선출됐다. 집행부 재경부장에 일공 스님, 문화부장에 원로 스님, 사회부장에 봉진 스님이 임명됐으며 고시위원장에는 재홍 스님이 임명됐다. 또 호법위원에는 만우, 경보, 성우 스님이, 초심위원에는 명원, 수안, 법능 스님에 대한 임명안이 인준됐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지난 종단 사태는 종단 제도의 미비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중앙종회는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 종단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7월 개최

7월 23~27일 열기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 제18회 임시회가 7월 말에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제11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8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스님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던 제218회 임시회를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의 회기로 개최키로 결의했다. 소집공고는 7월 1일 하기로 했으며, 안건접수는 7월 16일까지, 종책질의는 7월 18일까지 마감하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종단의 종책에 발맞춰 중앙종회 역시 지난 3월에 개최키로 했던 임시회를 무기한 연기했다”면서 “그 이후 종단 현안이 다수 발생했고, 지난해 중앙종무기관의 세입 · 세출 결산도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됐다. 종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고 이를 논의하려 한다”고 임시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19 극복에 도움되길”

부산 비구니 화엄회 코로나 피해 지원금 쾌척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법당 포교와 봉사를 펼쳐온 부산 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회장 상화, 이하 부산 비구니 화엄회)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기금을 쾌척했다.

부산 비구니 화엄회는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아름다운동행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화엄회 회장 상화 스님을 대신해 총무 효광 스님과 화엄회 회원인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화엄회 총무 효광 스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잘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은 “부산 비구니 화엄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자비 불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부산 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는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아름다운동행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탄하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화엄회 총무 효광 스님,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 사진= 박재완 기자

과도한 규제 해소로 불교문화 발전을

불교 관련 법령들은 지원보다는 규제에 가깝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들이 적지 않다. 이에 불교계는 규제 국가 법령에 대한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조계종은 불교 관련 13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찰 건축 관련 규제 법령 중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이다. 현행 법령에서 전통사찰 건축물은 현대 건축물과 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은 신축과 증개축에 있어서 관할 구청과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계사나 감리사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조계종은 한옥 등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사찰들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경우 많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전통사찰들은 존재해왔지만, 신축 불가 · 보전부담금 부과 등 구역 내 다른 주민 시설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 건축행위 시 토지보전부담금 감면과 신축 허용 · 증축 가능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조계종의 주장이다.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1. 차별금지법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
3. 문화재 도난 관련 법령
4. 사찰 제세 관련 법령

사찰 건축에 현대건축 적용
전통사찰 건축물 제외 요구
‘개발제한법’ 등 개정 필요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용적율 완화 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전통사찰 특정건축물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사찰 경내지 내 이미 건축돼 있지만, 건축법 등에 위반돼 철거 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집인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서 “전통사찰의 문화 · 역사 · 불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 법령들의 중복된 규제로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와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조 도의국사 가르침 선양할 것”

조계종 22일 다례재 봉행

조계종 종조인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선양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2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조의 가르침으로 인류가 평안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모든 종도는 조사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 조사선의 참면목을 실천해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다례재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보궁불사와 삼천불의 원불이 나투실 공경전 대작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모시던 사리1과를 쓰리세느대통령께서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스님께 직접 이운해주시면서
첫째 : 사리를 모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여 병고로 시달리는 많은 분들을 이롭게 할것
둘째 : 세계평화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것
셋째 : 사리이운을 계기로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기원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019년 법화경 장좌기도를 10년째 용맹정진 중 인도 다람살라 포탈라궁에서 발굴되어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모시고 계셨던 사리2과를 정토마을에 보내셨습니다.
환희용약할일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3과를 모시는 보궁불사가 현재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서원에 따라 원불을 조성하고 보궁불사에 동참하신 공덕주님들의 발원이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가피하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정토마을에서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기도와
대작불사 원만회향을 위한 제5차 법화참회 1000일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사모연안내

1. 제5차 법화삼매참법천일기도 2. 삼천불전 조성불사
3. 사리보궁 조성불사

※모든 법당불사는 형편에 맞게 분납가능하며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불사문의 : 052-255-8588 / 8586 (화주. 평등각) / 010-2926-8500 팩스 : 052-254-2347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